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2월 11일 ( 제1240호 )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 하나님 안으로!

한 자매를 만났다. 그는 예전에 교회에 다니다가 오랜 기간 세상과 짝하고 살았다. 그 결과는 말로 안 해도 다 알 것이다. 그는 몸도, 맘도, 형편도 말이 아니라고 했다. 힘들고 고달프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지금 밖에 나가면 너무 춥지? 밖에 계속 있으면 감기 걸리고, 감기에 합병증까지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런데 이 안은 어떠니? 따뜻하지? 심신이 편안하지 않니? 왜 네가 고달프고 힘들다면, 하나님 밖에 나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 밖은 춥고, 힘들고, 무서운 곳이야. 그러니 다치고 아픈 거란다. 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얼었던 몸과 마음이 녹고, 쫘쫘 얼었던 삶이 풀린다.”라고 말해줬다.

아담을 보자. 그가 하나님 안에 살 때는 부족함도, 고통도, 병도 없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평화로웠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이 하나님 영역을 벗어났다. 하나님 품 밖으로 나갔다. 그 후 아담의 삶이 어떠했나? 하나님 품 밖에서 인류의 삶이 어떠했나?

아버지 영역 안에서 살던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면 멋진 세상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세상은 추웠고, 냉정했고, 눈 뜨고 있는데 코 베갈 정도로 무서웠다. 그는 가진 것을 다 잃고, 심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그때 생각난 것은 아버지 품이었다. 그가 ‘어서 돌아가자’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나갈 때는 언제고 왜 돌아왔냐?’며 박대하지 않고, 맨발로 뛰어 나와 그를 반기고, 다시 아들로 대우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가 세상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6:1)”라고 했듯이, 세상으로 나간 형제자매들이여,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풍요가 넘친다. 그 안에 있어야 행복과 풍요와 평안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 하나님 품에 거하라.

## 고객은 서비스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동가홍상(同價紅裳),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다. 같은 가격에, 같은 노력이 든다면, 품질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품질 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광고하고, 투자하며 고객의 환심을 얻으려 애쓴다.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물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왜 장사가 안되는지, 왜 사업이 안되는지, 왜 목회가 안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내가 18번처럼 얘기하지만, 고객은 음식 맛이 좋아질 때까지, 서비스가 좋아질 때까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불량품을 참고 사서 쓸 사람은

던지듯 내려놓고, 안 좋은 표정이나 짓고 해보세요. 누가 내 돈 내고 가는데 또 찾아가겠습니까? 남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줄 아십니까? 먼저 고객의 마음이 열려야 주머니도 열리는 법입니다. 맛에 서비스까지 좋으면 팁도 얹어주지 않던가요?

최근에 교단 내 인사이드가 있었는데, 어느 제자가 왜 목회가 안 되는지 나에게 묻더군요. ‘야야,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줘. 사도행전에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하지 않았니? 괜히 성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지,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상대는 변하지 않아. 내가 먼저 낮

킨 성령의 역사가 거저 된 줄 아십니까? 깊이 파고 거름을 주며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의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찬송 한 곡을 인도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안내를 하고, 성가대로, 악기로 봉사하고, 율동을 드리고, 방송실에서 촬영과 자막으로 봉사하는 그 모든 헌신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보세요. 특히 안내위원들이 차량 안내를 하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부드러운 말로, 내가 늘 말하듯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봉사해보세요. 왜 성도들이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무슨 완장이나 찬 듯이 지시하듯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누가 다

왜! 목회가 안 됐을까?

음식이 맛있고 서비스가 안 좋으니까

봉우 이초석 목사

성도 탓 말고 너를 돌아보라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더 좋은 맛과 서비스, 품질을 찾아 떠납니다. 왜 장사가 안 되냐? 왜 사업이 안 되냐? 왜 목회가 안 되냐? 답은 자명합니다. 괜히 손님 탓하고, 고객 탓하고, 성도 탓하지 마세요. 자신을 돌아보아 합시다. 음식만 맛있어 보세요. 시간 불문, 거리 불문입니다. ‘맛집이다’ 하면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거기다 서비스까지 좋다? 금상첨화죠.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내부가 청결하고 서빙하는 분들이 방금방글 웃으며 접대하고, 음식 맛도 쓸만하다면 안 찾아갈 사람 없죠. 그런데 반찬 좀 더 달라해도 감감 무소식에, 반찬 더 달라했다고 상에다 툭툭

아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써봐.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문제를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며 정성을 다해봐.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교회 일꾼들도 너를 도우려고 발 벗고 나설 거야.’

나는 목회 40년을 달려가지만, 지금까지 매일 오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집회를 앞두고는 정말 기도에 전무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많은 해외집회에 나가서 일으

시 오겠냐고요. 정말 나를 도와서 일하는 모든 분들, 그날 그 시에 내가 받는 상을 같이 받는다는 믿음으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음식점으로 말하면 나는 주방장이고, 여러분들은 서빙요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조리해서 내놓아도 서빙하시는 여러분들이 손님들을 막 대하면 장사 다 망치는 겁니다.

왜 장사가 안 되냐? 왜 사업이 안 되냐? 왜 목회가 안 되냐? 누구 탓할 생각일랑 말고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4년 새해, 우리 교단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왕하4:1~7)

믿음은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시126:1). 이유인즉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大事)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대사(大事)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루신 것입니다. 아무도 예기치 못한 이 경이로운 일은 ‘꿈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기쁘고 놀라서 ‘이게 생시야 꿈이야?’ 하며 자신의 삶을 꼬집어 본 일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저는 목회 4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꿈 같은 일이었고,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또한 제 손을 통해 귀신이 떠나고, 각종 병들이 나음을 얻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온 것도 그렇고, 마비된 사지가 풀린 것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치 꿈꾸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능력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면 유혹이란 불청객이 찾아온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롬4:17)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삼상2:6~7)이며,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분’(고전1:27~28)이며,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서 그 말씀 하신 바를 행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민23:19).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사를 행하시니 아브라함의 나이 백 세에 아들을 얻었고, 한나에게 대사를 행하시니 무자하던 한나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꿈꾸는 것 같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것도, 외삼촌 밑에서 도망자의 설움을 마셨던 야곱이 금의환향한 것도 다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만 이런 일이 임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대사를 행하실까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를 따르던 어느 생도의 아내 사건 속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엘리사를 따르던 생도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총회장 이초석 목사

있나 봅시다. 채주들이 들어닥치더니 빛을 못 갚으면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다급해진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빈 그릇을 빌려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왕하4:3~4)고 했습니다. 생도 아내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릇을 빌려서 빈 그릇을 빌려 조금 빌지 말고 빌고, 그릇이 다하자 기름이 멈췄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입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을 유의 깊게 살펴보면 첫째,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릇을 빌려서 어찌라고요? 돈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우리 삶에 ‘꿈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11:40). 이는 죽은 자 사흘 된 오라비 나사로 때문에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었더니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지요. 나사로는 두 자매에는 부모요, 기업이었습니 다. 당신의 죽은 기업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히11:6). 히브리서 11장인 ‘믿음 장(場)’에 기록된 자들이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만난 것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믿음’의

로 시작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당신 삶에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하면 제한을 받으십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억지로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어야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됩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며 스스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눅18:27). 하나님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게도 하시는 분입니다(막10:25). 한 마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 못 이루는 것이지, 그분이 능력이 안 돼서 못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는 생도 아내에게 엘리사는 말합니

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왜 ‘문을 닫고’라고 말했을까요? 이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너한테는 기름 한 병이 전부야. 이게 현실이라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 미혹과 유혹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요, 친구요, 심지어는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마10:36). 하나님께서 제게 ‘한국예루살렘교회’로 개명하라고 하셔서 가장 존경하던 목사님께 이 일을 고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이 목사, 그냥 원래 이름대로 철산예루살렘교회로 해. 무슨 한국이야?” 그러셨습니다. 만일 제가 그분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예수중심교단이라는 꿈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뜻을 정했으면 귀는 막고 눈만 뜨고 가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귀는 닫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아내에게 묻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을 같이 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고후 6:14). 안 믿는 자가 계속 초를 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지만, 부정적인 자와 함께 있으면 부정이 전염이 되는 법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이유가 바로 전염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감염자와 함께 있으면 감염되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 믿음이 전염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옆에 부정적인 자가 있었다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괜히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께 노여움만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의 종들은 나아만에게 주의 말대로 행하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삶에 꿈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믿으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일랑 일절 듣지 마세요. 그러면 생도의 아내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바디매오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꿈 같은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흥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당신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4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려봅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 정직하게, 진실하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미와 같이 의도적으로 길목에 올무를 놓아서 잡아 삼키는 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부족함이 없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리고 꿀벌처럼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식물의 수정을 돕고 꿀을 모아서 나뭇잎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살아가지 못할지언정 거미처럼 악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영웅시하고 높이는 자들도 동일한 악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히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홀연히 살에 상하리로다”(시편64:5~7). 사악한 무리들이 간교한 묘책과 술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득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해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쓰레기 같은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진 공작 뉴스들도 섞여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진위 여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

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거미줄을 친 자가 진짜로 나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신이 맹세한 공약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치가들이 아직도 건재하게 살아남아서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재물과 학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정직한 품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의 속성을 닮아서 안 됩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미혹하여 넘어뜨린 후에 당사자에게는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 허물을 참소하는 행위는 결코 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핑개쳐버리고 상대방의 허물만 들춰내며 발목을 잡는 행위만 일삼는 지도자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불분명해지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게 되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욕하면서 닮는다고 합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닮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선행을 베풀며 주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 신앙논객 ::

## 하늘의 상을 쌓는 법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남아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유명한 문구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의한 바로 이 말이다. “사람(=국민, 백성)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통치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말이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모든 일들이 아무 소용도 없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공력을 세우는데, 그 공력을 불로 시험해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역자들일 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왜 교회에 왔는지 물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설교 시간을 통해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

으려고,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다. 믿음이 없을 때, 아직 기초가 놓여있지 않았을 때는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계속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이다(히11:6).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직분 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와 목적을 점검해보라.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사람’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만족이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그날에 받을 상이 없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의,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자. 그것이 하늘에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상을 쌓는 유일한 방법이다.

신혁주 전도사

.....

## 성공과 축복은 전염된다

나는 신명기 28장을 좋아한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장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나는 앞의 축복장만을 읽는다. 저주는 원치 않을뿐더러 나오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복 있는 자가 있다. 그가 가면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붐비고, 화평케 되는 사람이 분명 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 했다. 그는 그의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고 나서 반대쪽을 택하다 보니 척박한 땅을 차지했으니 그는 그런 환경에서도 부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 아들 이삭도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 다녔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았다. 적에게 우물을 빼앗겨도 그가 옮겨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솟았다.

먼저 복 있는 자가 되고, 또한 복 있는

자를 만나야 한다. 그럼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성령에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아낌없이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복 있는 자인가? 당신 옆의 사람은 복 있는 자인가? 사람은 환경이다. 내 환경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그러므로 사람을 가려 사귀라. 이는 사람을 차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복이 오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저주가 오기에 그렇다. 올해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초석 목사 저서 ‘적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지휘관이다’ 중에서



.....

:: 소망의 언덕 ::

## Amazing grace

성공회 신부였던 존 뉴턴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Amazing Grace(놀라운 은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애창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찬송가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나같이 가엾은 사람을 구해주신 소리, 이 얼마나 감미로운가요.” 한글로 번역하면 참 고상한 느낌이지만, ‘wretch’는 ‘쓰레기 같은 놈’, 이런 느낌입니다.

존 뉴턴은 과거 흑인 노예무역을 하면서 수많은 흑인들을 학대했던 쓰레기 같은 자신을 깊이 참회하고, 그런 자신을 주의 종으로 써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썼습니다.

2024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처지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자와 과거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자입니다. 어느 한 장로님은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셨습니다. “이 자격 없는 자를,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상상도 못했던 부를 허락해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분은 30여 년 전 시절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때가 언제 적 일인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해?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마치 처음부터 강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부요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약속된 축복의 땅을 차지하거든 네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노예를 선대하라고. 장막절을 통해서 네가 광야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통해서 너 역시 죽음이라는 저주에서 예외가 아니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24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참으로 누리기 위해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마음을 겸손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며 어떨까요!

이현승 목사  
coollee0817@naver.com

.....

:: 성도간증 ::

:: 진리에 이르는 지식 ::

##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간증을 올립니다. 우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느 날 하혈이 너무 심해서 고색동에 있는 여성수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피를 너무 흘려 빈혈 수치가 높다고 하여 수혈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생리불순에 하혈이 심하고 많이 아파서 다시 수병원에 가서 수혈했습니다. 그런데 수병원에서 분당차병원으로 가보라 해서 CT 및 PET-CT를 찍고 진찰받은 결과,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으려 하니 1월 15일이나

가능하다고 해서 너무 늦다고 하니 그럼 다시 수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수병원에서는 그동안 피를 너무 흘려 다시 수혈해야 한다고 해서 수혈하고 나니 1월 5일에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로 배를 열었더니 자궁과 장기가 너무 유착이 심해서 수술을 더 진행하지 못하고 봉합한 상태에서 총회장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분당차병원으로 가라 했습니다. 차병원에서는 수술 날짜를 잡으려 해도 유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단독 수술을 할 수는 없고 외래와 같이 수술해야 한다며 계속 날짜를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9일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다른 과랑 협조가 안 됐으며 미루자고 하더니 다음 주에 외국 출장 일정이 있다며 29일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저도 집중적으로 유착된 것을 풀어달라고 3일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꼭 외국 출장 전에 수술해달라고 애원했고, 마침내 빨리 수술하는 것으로 극적 합의를 보았습니다. 수술하기 전, 주치의가 유착이 너무

심해서 완전 적출이 어려우니 오늘은 부분 적출을 하고, 나중에 나머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 적출 후 그대로 둘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있고, 목사님 말씀에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는 말씀,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이 지난번 통화에서 '암도 고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너희와 함께하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저의 기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3시간에 걸쳐 수술하고 나온 주치의가 하는 말이 수술이 너무 완벽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세 번의 수술 연기와 두 번 수혈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완벽하게 적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세 번이나 수술이 연기된 것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에 더 완벽하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기에수중심교회 라성호, 전진희 집사

### 잘못 알고 있는 5대 성인

사람들은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예수님을 종교의 창시자 또는 5대 성인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권력과 욕심을 버렸다는 것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았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들을 존경하면서 이들의 교훈을 듣고 성인으로 추종하고 있다. 5대 성인이라는 말은 이러한 공통점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의 잘못된 지식과 판단으로 나온 결과다.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려놓은 무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성인이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며, 거룩이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연계를 초월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는 육신의 아버지의 씨로 태어난 자들이며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으로 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남자의 씨로 사람이 된 자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다르다. 사람은 거룩할 수 없으므로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에게는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없다. 이들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육신이 죽었고 무덤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으며, 부활하신 모습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고전 15:6),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성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이다. "사람은 다 거짓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롬 3:4).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는 거짓된 종교의 창시자들이다. 이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명예와 권력, 부귀를 초월했을까라도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사람의 씨로 태어난 죄인이며, 따라서 이들의 가르침은 참 진리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들의 가르침이 진리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승호 목사  
Sungyeoha@hanmail.net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 하나님의 말씀은 잡는 자가 임자다

총회장 목사님께 상담받으러 갔다가, 며칠 전 꾸었던 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얼마 후, 갑자기 손뼉을 탁 치시더니 꿈을 풀어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며,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겪어본 적 없는 장래의 일을 말씀하셔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기본부터 차근차근 실천했습니다.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일에 발전은 있었지만, 더 큰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여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단에서 통성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원을 떠나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거야!"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며칠 뒤, 1년 6개월 전 총회장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졌고,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던 대로 적용하여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준비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

쳤거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인내의 시간이 힘겨워서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 외에도 지난 교회 신문에 가족 재판 문제로 기도하던 중 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사무엘상 17장(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의 말씀을 받은 후 목사님을 찾아뵈었을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네가 의롭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범무법인이 너를 상대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변호사 없이 담대히 재판에 나가 승소했던 간증(교회신문 973호/2018.10.21),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니(마25:40, 마10:41~42), 기도원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천 개를 대접하면, 단번에 예수님을 천 번 대접할 수 있다'고 총회장 목사님께서 지교회에서 하셨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즉시 아이스크림 3천 개로 예수님을 대접한 후, 새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간증(교회신문 1008호/2019.6.23)이 실렸는데, 모두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새해 송구영신 예배에 총회장 목사님께

서 '2024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꼭 필요한 것을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던 전지전능한 하나님(왕상3:5~15)께서 그 시간 눈앞에 찾아오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듯하여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절호의 기회에 흥분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눈앞에 찾아오신 솔로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크고 축광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실 하나님(요5:9)을 기대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구한 것을 모두 받고 나누어서, 2024년 표어처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산 한 해가 되었노라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2:13).

정명관

v-777@naver.com

2024학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기간:  
2024년 2월 18일까지  
문의: 02. 533. 9191